

'땅끝 바다 위를 걷다' 해남군, 땅끝탑 스카이워크 설치

북위 34도17분38초 한반도 땅끝지점 세모꼴 기념탑 탑에서 18m 바다로 돌출...시작과 끝 공존 의미 담아

해남군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탑에 땅끝바다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스카이워크를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땅끝탑은 북위 34도17분38초 한반도의 땅끝지점에 우뚝 솟은 세모꼴 기념탑이다.
군은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땅끝 앞 전망대를 바다의 일부가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로 리모델링했다.
높이 9m, 길이 18m인 땅끝탑 스카이워크는 '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기호를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했다.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육지 방향으로는 땅끝탑과 포도존이 서있고, 해안 방향에서는 아름다운 땅끝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바닥의 일부를 투명한 강화유리로 제작해 땅끝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는 스티를 맛볼 수 있다.
2020년 설계에 착수,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치고 공법심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망대를 설계해 2021년 12월에 착공했

다. 이후 1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완료했다.
명현관 군수는 "땅끝탑은 땅끝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꼭 한번 둘러보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점으로, 땅끝탑과 함께 스카이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땅끝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끝탑은 땅끝마을 감두산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에서 데크길을 통해 아래쪽으로 500여m를 내려오면 만날 수 있다.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걷기길도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청년 창업하세요...창업스쿨 개강 마케팅 교육·성공사례 공유 등 창업 필수 교육과정 운영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 청년 창업스쿨을 오는 12월 2일까지 실시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진도군 거주 49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지난 14일(월) 개강했다.
주 2회 청년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창업마인드 함양 ▲아이템 발굴 ▲소비자·시장 분석 요령 ▲창업 우수사례 공유 등 창업에 필요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의 전 과정에 창업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들이 참여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장의 노하우를 진도군 청년들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어촌 정착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청년 창업스쿨은 창업을 희망하는 진도군 청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역량을 키워 진도군에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행복 완도' 실현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계층별 꼼꼼한 지원 정책 펼쳐

완도군에서는 민선 8기 발전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인, 아동,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며 행복한 완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민선 8기 공약 중 복지 정책은 총 18건이다.

군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492억 원을 들여 100호 규모의 '고령자 복지 주택'을 건립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버스 및 여객선 무료 운임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버스 및 여객선 운임 시스템 정비를 마친 후 내년 하반기에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 키움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이 한 명 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지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대찬 재배 1번지 강진군, '강대찬' 브랜드쌀 출시

강진군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강대찬 쌀 브랜드 '강대찬'이 이달 중순부터 강진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강진통합RPC)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 신종 강대찬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장실증 등 육성기간을 거쳤으며 2021년 품종보호권등록을 신청해 올 하반기 정식품종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기존의 새청무쌀 브랜드와 함께 최고급 쌀 브랜드화를 위해 올해 다수의 농업인과 500ha 이상의 면적에서 실증재배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타품종 대비 도복 및 수발아, 병해충에 강함이 확인되었고 밥맛 및 수량까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증재배 기간은 올해 단 1년 뿐이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강진통합RPC 등 관계자들은 빠른 브랜드화 시도를 통해 시장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대찬쌀 가공·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통합RPC 채희진 대표는 "강진 쌀이



소비처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철저한 품질 관리, 단일품종 유통이 중요한 요소"라며 "강대찬이 강진과 전남을 대표하는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수한 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강대찬이 새청무와 함께 강진을 대표하는 쌀 품종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진쌀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진군 재배환경에 적합한 신종종 보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청소년 참여위 '정책 제안의 날' 개최

장흥군은 최근 '우리가 원하는 W. E(welfare 복지, environment 환경)'를 주제로 '2022년 장흥군 청소년 정책 제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 복지, 환경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제안은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정기 회의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2022년 8월, 140명)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된 것들이다.
이날 참가 청소년들은 2인 1조로 3개 팀을 구성해 청소년의 활기찬 건강생활, 그린도시화&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복지 사업 확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침착한 태도와 설득력 있는 발표에 학부모와 방청 청소년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 마감 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안된 정책 중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정책'으로 '그린도시화&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이 선정되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